

일반긴장이론(GST)을 이용한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to the Use of Cellular Phone Depend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심현진*, 이일현**, 이현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Hyun-Jin Shim(infocare@korea.ac.kr)*, Il-Hyun Lee(tarra@StaEdu.com)**,
Hyun-Sill Rhee(pridehyun@korea.ac.kr)**

요약

본 연구는 Agnew의 GST에 기반하여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 중1 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 2,151명을 최종 연구에 이용되었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AMOS 21 Ver.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1398.997$, $df=144$, $GFI=.937$, $NNFI(TLI)=.902$, $CFI=.918$, $RMSEA=.061$ 으로 나타나 GST이론을 통해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대해 검증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긴장요인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는 휴대폰 의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중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제공하려 한다.

■ 중심어 : | 중학생 | 휴대폰 의존 | 구조방정식 | 일반긴장이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using cellular phone dependence of middle school student based on Agnew's GST. A total of 2,151 questionnaires were used to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2010. Analytical method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as verified by AMOS 21.0 Ver.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 Firstly, The fit of definitive model was $X^2=1398.997$, $df=144$, $GFI=.937$, $NNFI(TLI)=.902$, $CFI=.918$, $RMSEA=.061$. Model was proper to verify the use of cellular phone dependence of adolescents. Secondly, The strain 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 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o make negative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negativ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 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o the use of cellular phone dependence of middle school student. We need to provide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cellular phone dependence intervention programs.

■ keyword : | Middle School Student | Cellular Phone Dependence | Structural Equation Model | General Strain Theory |

1. 서론

1. 배경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우리나라의 휴대폰(Cellular phone)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2006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4,019 만 명에서 2011년에는 5,210 만 명으로 나타났다 [2]. 2009년 MWC (Mobile World Congress)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일본의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휴대폰 보급률이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휴대폰의 급속한 보급은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디지털화 시키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Digital Native Generation)'가 되었다 [3].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며 [4][5], 자아정체성과 새로운 관계의 형성, 기본적 지식의 습득 등을 학습하는 시기라 하였다 [6]. 이런 측면에서 휴대폰의 급속한 보급은 청소년시기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청소년의 불안, 대인관계 형성, 정서적 문제와 청소년의 중요한 과업인 학습의 부진, 손목통증, 시력저하와 같은 신체적 문제, 가정문제 등을 야기한다 [7-10]. 이러한 부정적 측면 중에서도 휴대폰의 지나친 의존이라는 문제를 이슈가 되었다. 휴대폰 의존은 청소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비행(지위비행, 휴대폰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11-14].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 중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gnew와 White(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GST)을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을 알아보았다 [15].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긴장요인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와 휴대폰 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이를 통해 휴대폰 의

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서,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중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자료로서 제공하는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일반긴장이론

Agnew와 White(1992)의 연구에서의 일반긴장이론(GST)은 Merton(1938)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을 벗어나 일상생활에 적용한 이론이다 [15][16]. Agnew 등은 그의 연구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목표한 것의 실패(failure to achieve positively valued goals)', '긍정적 자극의 부재(removal of positively valued stimuli)', '부정적 자극의 생성(presentation of negatively valued stimuli)'이 부정적인 행태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긴장의 발생은 '부정적 감정'을 생성하게 되며, 이는 부정적 행태를 행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15][17].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행태를 휴대폰 의존에 문제를 두어 진행하였다.

2.2 긴장요인과 청소년기

본 연구는 청소년의 3가지 긴장요인 중 '부정적인 자극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긴장요인은 청소년기의 특징과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애 주기에서 청소년 시기는 큰 변화가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여러 갈등과 기대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우리나라의 입시문화와 같은 교육환경에서 긴장을 겪게 되며, 사회규범과 인간관계, 또래문화를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6][18].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부모(가족), 친구(또래), 학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요인을 학교긴장, 부모긴장, 또래긴장으로 구분하였다.

2.3 휴대폰의존과 청소년기

청소년 시기는 성장과정에 있는 단계이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며 [22], 이러한 상황으로 갈등과 방황을 하게 된다 [23]. 청소년의 부정

1 2008년 KTF(현, KT), MSRI, GSM가 4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2009년 Mobile World Congress(MWC)에서 발표되었음

적 상황은 현실도피와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게 되는데, 선행연구에서 비행,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24-26].

하지만 휴대폰의존의 문제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휴대폰의 휴대성과 이동성은 청소년이 접할 시간이 더욱 많아 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27].

또한 청소년기는 민법상으로 미성년자로 구분이 되며, 이는 심신의 발육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 행위무능력자로 구분하고 있다. 즉, 청소년은 의사결정에 대해 한계를 가지며 성인에 비해 휴대폰 의존에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2010 중1 패널 1차년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CYPS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웹사이트에서 연구목적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KCYPS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전국 16개 시도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단기종단패널로서 현재 2010년, 2011년의 데이터만이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자료만을 이용한 횡단적 연구이다³. 본 연구에서는 전체 2,351명 중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학생과 응답에 결측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총 2,151명이 최종 연구에 이용되었다. G*Power program에 통하여 회귀분석의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02(small), 검정력 0.9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표본 수는 1,986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였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도를 Agnew의 GST 이론을 이용하여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GST모형에 학교긴장, 또래긴장, 부모긴장을 긴장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고, 부정적 삶의 만족도를 부정적 감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요인이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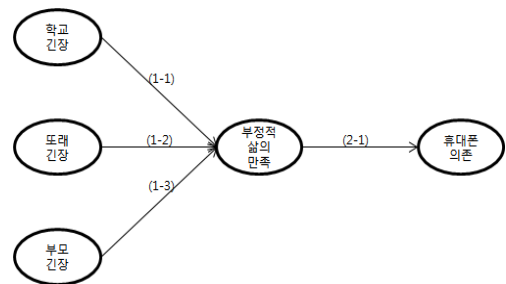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및 가설

가설 1 : 중학생의 긴장요인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 중학생의 학교긴장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중학생의 또래긴장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중학생의 부모긴장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는 휴대폰의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는 휴대폰의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대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와 신뢰도분석을 SPSS 21.0 Ver.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집단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21.0 Ver.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2 법률 제 11728호, 「민법」.(시행일 2013. 7)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Analysis, CFA)과 함께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⁴와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⁵를 산출하고, 판별타당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 자료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학교긴장은 민병수(1991), 정화실(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된 20문항을 ‘학교규칙’, ‘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관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 중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을 보정하였다[28][29].

또래긴장은 Armsden et. al(1987)의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척도(IPPA)에서 하위영역별로 ‘의사소통’, ‘신뢰’, ‘소외’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외의 요인이 CFA에서 요인적재량이 0.5보다 낮아 최종 6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을 보정하였다[30].

부모긴장은 허묘연(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양육태도검사’ 문항에서 과잉간섭과 관련한 3문항을 선택하였다[31].

조현철 등(2007)의 연구에서 개별항목 적용 분석과 항목묶음 적용 분석 간의 검정통계량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유의성 검정에서도 변화가 없었으며, 항목묶음을 이용한 경우 모델 적합도(Model of Fit)가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긴장과 또래긴장의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항목과 구성개념간의 균형(Item to Construct Balance)을 이용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32].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3문항을 사용하였다[33].

휴대폰 의존은 이시형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휴대폰 의존도’ 7문항을 사용하였다. 7문항에 대해 CFA를 실시하여 모든 항목이 요인적재량 0.5 이상으로 나타나 7문항을 선택하였다[34].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
성별	
남	1,176 (50.0)
여	1,175 (50.0)
거주지역	
특별시	234 (10.0)
광역시	761 (32.4)
시/도	1,356 (57.6)
가족구성	
양부모	1,837 (78.1)
편부모	224 (9.5)
조부모	19 (0.8)
조부모+양부모	191 (8.1)
조부모+편부모	60 (2.6)
기타	20 (0.9)
연간가구소득	
2,500만 ↓	611 (26.0)
2,500~4,000만 ↓	650 (27.6)
4,000~5,500만 ↓	415 (17.7)
5,500만 ↑	675 (28.7)
주거형태	
주택	953 (40.5)
아파트	1,385 (58.9)
기타	13 (0.6)
학교형태	
남자학교	216 (10.0)
여자학교	272 (12.7)
남여공학	1663 (77.3)
종교	
개신교(기독교)	636 (29.6)
천주교(가톨릭)	183 (8.5)
불교	369 (17.2)
무교	943 (43.8)
기타	20 (0.9)
총 합	2,351 (100.0)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 각각 1,176명(50.0%), 1,175명(50.0%)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시/도가 1,356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 761명(32.4%)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양부모의 경우 1,837명(78.1%)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부모 224명(9.5%), 조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가 191명(8.1%)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가구소득은 2,500만 원 이하가 611명(26.0%), 2,500

4 $AVE = \frac{\sum \lambda^2}{\sum \lambda^2 + (\sum 1 - \lambda^2)}$

5 $CR = \frac{(\sum \lambda)^2}{[(\sum \lambda)^2 + \sum (1 - \lambda^2)]}$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구분	M±SD	Cronbach's α	CR	학교 긴장	또래 긴장	부모 긴장	부정적 삶의 만족도	휴대폰 의존	왜도	첨도
긴장요인										
학교긴장	2.22±.39	.686	.875	(.806)					-.019	.353
또래긴장	2.03±.57	.850	.948	.078***	(.904)				.384	.771
부모긴장	2.36±.70	.638	.734	.026***	.018*	(.598)			.178	-.267
부정적 삶의 만족도	2.18±.74	.814	.853	.089***	.142***	.092***	(.752)		.242	-.301
휴대폰 의존	2.94±.67	.854	.791	.037***	.013*	.062***	.061***	(.670)	-.484	-.186

() :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p<.05, **p<.01, ***p<.001

표 3. 모형의 적합도

	χ^2	df	Q	GFI	TLI	CFI	RMSEA
기준				>0.9	>0.9	>0.9	<0.08
제안모형	1511.408 ***	145	10.424	.932	.894	.910	.063
수정모형	1398.997 ***	144	9.715	.937	.902	.918	.061
△	112.438	1	0.709	.005	.008	.008	-.002

*p<.05, **p<.01, ***p<.001

~ 4,000만 원 이하가 650명(27.6%), 4,000 ~ 5,500만 원 이하가 415명(17.7%), 5,500만원 초과가 675명(28.7%)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1,385명(58.9%)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이 953명(40.5%), 기타 13명(0.6%)로 나타났다. 학교형태는 남녀공학이 1,663명(7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 943명(43.8%), 기독교 636명(29.6%)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Anderson(1988)의 확인적 요인분석법에 근거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여,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항목만을 추출하였다[35]. 최종 CFA모형의 적합도는 $X^2=1342.439$, $df=142$, $P<.001$, $Q=9.454$, $GFI=.941$, $TLI=.905$, $CFI=.921$, $RMSEA=.060$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상관분석과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AVE, CR값을 [표 2]에 기술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을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또한 수렴타당도에 대해 AVE와 CR이 각각 최소 .598 .734로 나타나 기준인 0.5,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모든 항목에서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R^2)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또한 SEM은 다변량 정규성

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왜도와 첨도 모두 3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38].

3. 모형 검증 및 가설 검증

3.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AMOS 21.0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표 3]에 기술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제시한 연구모형과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절대적합지수에서 $X^2=1511.408$, $df=145$, $p<.001$, $Q=10.424$, $GFI=.932$, $RMSEA=.063$, 증분적합지수에서 $TLI=.894$, $CFI=.910$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LI의 값이 0.9이하로 나타나 MI(Modification Indices)를 사용하여 수정모형을 탐색하여 휴대폰 의존의 측정변수간의 공분산 경로를 추가하였다. 절대적합지수에서 $X^2=1398.997$, $df=144$, $p<.001$, $Q=9.715$, $GFI=.937$, $RMSEA=.061$ 로 나타났다. X^2 의 유의확률의 경우 표본 수에 민감하여 표본수가 많은(300 이상) 공분산행렬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대신해 Q통계량을 사용하여 3이하이면 수용 할 수 있지만, 표본수가 많은(750 이상) 경우 한계를 가진다. GFI의 경우 0.9이상, RMSEA는 0.08이하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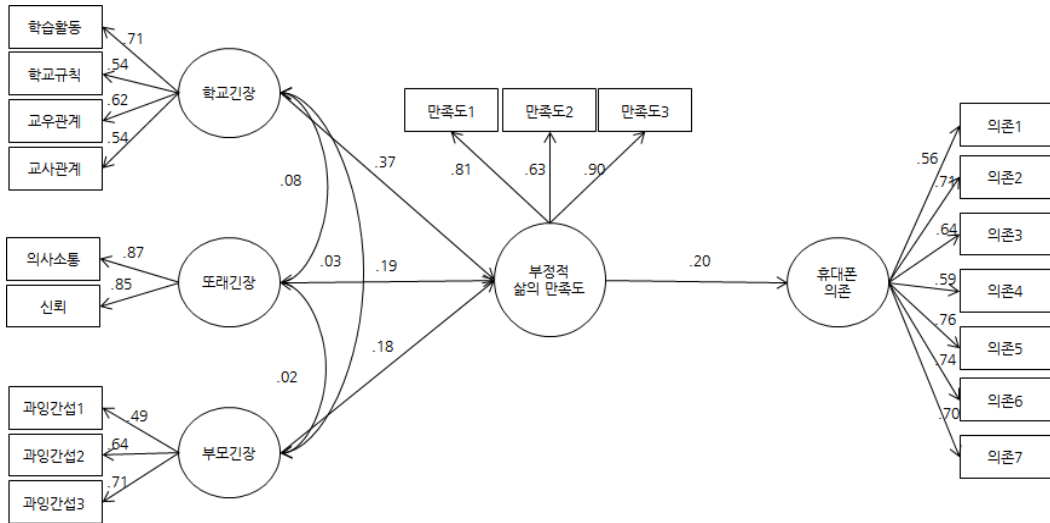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결과

표 4. 연구결과

구분	경로	γ / β	S.E	C.R	p	가설채택
연구가설 1						
(1)	학교긴장 → 부정적 삶의 만족도	.365	.076	11.026	<.001	채택
(2)	또래긴장 → 부정적 삶의 만족도	.194	.034	6.873	<.001	채택
(3)	부모긴장 → 부정적 삶의 만족도	.180	.029	6.999	<.001	채택
연구가설 2						
(1)	부정적 삶의 만족도 → 휴대폰 의존	.203	.017	8.290	<.001	채택

각 적합도가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적합지수에서 TLI(NNFI)=.902, CFI=.918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Hotelter .01수준에서 314로서 200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37].

3.2 연구가설 검증

수정모형을 바탕으로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표 4]에 기술하였고, 연구모형에 대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3.2.1 중학생의 긴장요인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에 대한 검정결과, (1)의 학교긴장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계수(γ_1)는 .37 (C.R=11.03, $p<.001$)으로 채택되었다. (2)의 또래긴장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계수(γ_2)는 .19 (C.R=6.87, $p<.001$)으로 채택되었다. (3)의 부모긴장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계수(γ_3)는 .18 (C.R=7.00, $p<.001$)으로 채택되었다. 즉, 중학생의 긴장요인이 증가 할수록 부정적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3.2.2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가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2)에 대한 검정결과는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가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경로계수(β)는 .20 (C.R=8.29, $p<.001$)으로 채택되었다. 즉,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가 증가 할수록 휴대폰 의존이 증가하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2가 지지 되었다.

VI.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Agnew의 GST에기반하여 긴장요인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이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2010 중1 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휴대폰의 의존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검증에 따른 적합도 지수가 $X^2=1398.997$, $df=144$, $p<.001$, $Q=9.715$, $GFI=.937$, $TLI(NNFI)=.902$, $CFI=.918$, $RMSEA=.061$ 으로 나타나 GST이론을 통해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에 대해 검증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긴장요인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GST이론에서 부정적 자극의 생성에 근거하여 학교긴장과 또래긴장, 부모긴장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 형성에 통계학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긴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비행,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39][40]. 즉, 중학생의 학교긴장을 줄여줌으로써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긴장요인을 적절히 중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중학생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는 휴대폰 의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장과 부정적 삶의 만족도로부터 피하기 위해 휴대폰 의존을 행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기존의 연구에서 인터넷 문제, 비행 등의 부정적인 행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41-43]. 즉, 중학생

의 부정적 삶의 만족도를 줄여 줌으로서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안

첫째, 본 연구에서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Agnew가 제시한 3가지의 긴장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계가 존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학생에 대한 다양한 긴장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진행 시 종단적인 연구를 하기에 자료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여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패널자료가 제공된다면 중학생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양심영, 박영선,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향의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 Vol.43, No.4, pp.1-16, 2005.
-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서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p.1-325, 2012.
- [3] 성은모, 황경아,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162, 2012.
- [4] L. Bourke, J. Humphreys, and F. Lukaitis, "Health behaviours of young, rural residents: a case study," Aust J Rural Health, Vol.17, No.2, pp.86-91, 2009.
- [5] 이인정, 최혜경, *인간 행동 과 사회 환경*, 남남 출판, 2000.
- [6] R. 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David McKay, 1972.
- [7] 광민주,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실태와 중독적 이

- 용”, 생활과학연구논총, Vol.13, No.1, pp.183-205, 2004.
- [8] S. L. Rauschenberger and S. J. Lynn, "Fantasy proneness, DSM-II-R Axis 1 psychopathology, and dissoci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4, No.2, pp.373-380, 1995.
- [9] 송은주,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Vol.15, No.3, pp.325-333, 2006.
- [10] 송명준, 허유정, 이은정, 권정혜, "인터넷 중독: 중독적 특성, 중독의 결과 및 중독자의 하위유형",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Vol.5, 2001.
- [11] 이혜선, 강차연,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Vol.20, pp.79-95, 2007.
- [12] 김하늘, 황의갑,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범죄학회*, Vol.4, No.1, pp.115-141, 2010.
- [13] 김미숙,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Vol.1, No.1, pp.115-138, 2011.
- [14] 현정석, 박찬정, 하환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대한 성별 시간관 차이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6, pp.412-424, 2013.
- [15] R. Agnew and H. R. White,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Vol.30, No.4, pp.475-500, 1992.
- [16] R. K. Merton,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 No.5, pp.672-682, 1938.
- [17] R. Agnew,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30, No.1, pp.47-88, 1992.
- [18]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6, No.2, pp.61-94, 1994.
- [19] P. Mazerolle and J. Maahs,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Justice Quarterly*, Vol.17, No.4, pp.753-778, 2000.
- [20] R. Paternoster and P. Mazerolle,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31, No.3, pp.235-263, 1994.
- [21] S. D. Lamborn, N. S. Mounts, L. Steinberg, and S. M. Dornbusch,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Vol.62, No.5, pp.1049-1065, 1991.
- [22] M. Poster, *The second media age*, Polity Press, 1995.
- [23] 손선경, 채준호, "청소년의 불안, 자의식 및 방어기제에 따른 심상능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1, No.1, pp.247-266, 2009.
- [24] K. Kim, E. Ryu, M. Y. Chon, E. J. Yeun, S. Y. Choi, J. S. Seo, and B. W. Nam,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3, No.2, pp.185-192, 2006.
- [25] F. L. Cao and L. Y. Su,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Vol.33, No.3, pp.275-281, 2007.
- [26] B. D. Ng and P. Wiemer-Hastings, "Addiction to the internet and online gaming," *Cyber Psychology & Behavior*, Vol.8, No.2, pp.110-113, 2005.
- [27] 구현영, "청소년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Vol.39, No.6, pp.818-828, 2009.
- [28] 정화실,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용인: 단국대학교, 2009.
- [29]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서울: 홍익대학교 1991.
- [30]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4, 1987.

- [31]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 [32] 조현철, 강석후,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목록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Vol.17, No.3, pp.133-153, 2007.
- [33]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161, 2006.
- [34]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최명목, 양지윤,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2.
- [35] J. C. Anderson and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p.411, 1988.
- [36] J. 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1978.
- [37] 우종필,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2012.
- [38] R.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New York, p.366, 2005.
- [39] 이성식, 전신현,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Vol.23, No.3, pp.293-318, 2012.
- [40] 정소희, "청소년비행의 발달계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Vol.20, No.2, pp.31-64, 2009.
- [41] D. R. Hollist, L. A. Hughes, and L. M. Schaible, "Adolescent maltreatment, negative emotion, and delinquency: An assessment of general strain theory and family-based strai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37, No.4, pp.379-387, 2009.

- [42] 이성식,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 한국공안행정학회, Vol.-, No.18, pp.273-299, 2004.
- [43] 이현웅, 곽윤정,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Vol.18, No.7, pp.59-83, 2011.

저 자 소 개

심 현 진(Hyun-Jin Shim)

준회원



- 201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 경영학과 보건학사
- 2012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행정학 전공, 석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 의료정보, 병원경영, 인사관리

이 일 현(Il-Hyu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이학석사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이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연구교수

<관심분야> : 통계분석, 응용통계, 보건의학통계

이 현 실(Hyun-Sill Rhee)

정회원



- 1990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5년 2월 :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의료 질 관리, 보건정보관리, 건강기록 관리